

SRI

정책리포트

2018. 05. 14.

2017

수원시 고용동향 분석

조용준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 naya@suwon.re.kr

요약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고용률은 58.1%로 전년 동기 대비 0.1%p,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0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 7백명(4.9%) 증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음
- 수원시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497,000명), 거주지 기준 취업자(585,000명) 모두 전국 1위를 기록. 이는 수원시의 산업규모에 비해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서비스업발달은 근무지 및 거주지 취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

정책제안

- 기존의 수원시 산업구조에서 갑작스럽게 취업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입인구증대에 따른 고용 확대 정책 필요
- 인구이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수원시로의 이주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인구유입 인센티브 설계 필요. 이는 교육, 교통, 교양(수준) 등 '3교'인프라 구축을 의미

KEYWORD_ 2017 고용동향 보고서, 수원시 실업률, 청년층과 실업률, 수원시 양질의 일자리, 임금근로자 비중, 상용근로자 비중

SRI 정책리포트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실업률은 3.9%를 기록
 - 동기간 전국평균 실업률은 3.9%, 경기도평균 실업률은 4.6%를 기록
 -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원시는 계절적·마찰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취업자 중 양질의 일자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을 기록
 -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이유를 살펴볼 필요 있음
-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의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수가 거주지기준 취업자(수원시에 살지만 어디에서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 수보다 더 적은 대표적인 도시들 중 하나로 나타남
 - 이에 수원시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 대두
 -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수원시의 상황에 적용해볼 필요성 대두
- 근무지, 거주지기준 취업자 수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를 살펴보고 수원시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 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 있음
 - 2010~2017년까지 수원시의 전입인구 수와 더불어 성남시, 용인시 등 주변 도시들의 전입인구도 살펴봄
 - 경기도 내 전입인구들의 전입사유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원시 인구 유입의 요인들을 찾아볼 필요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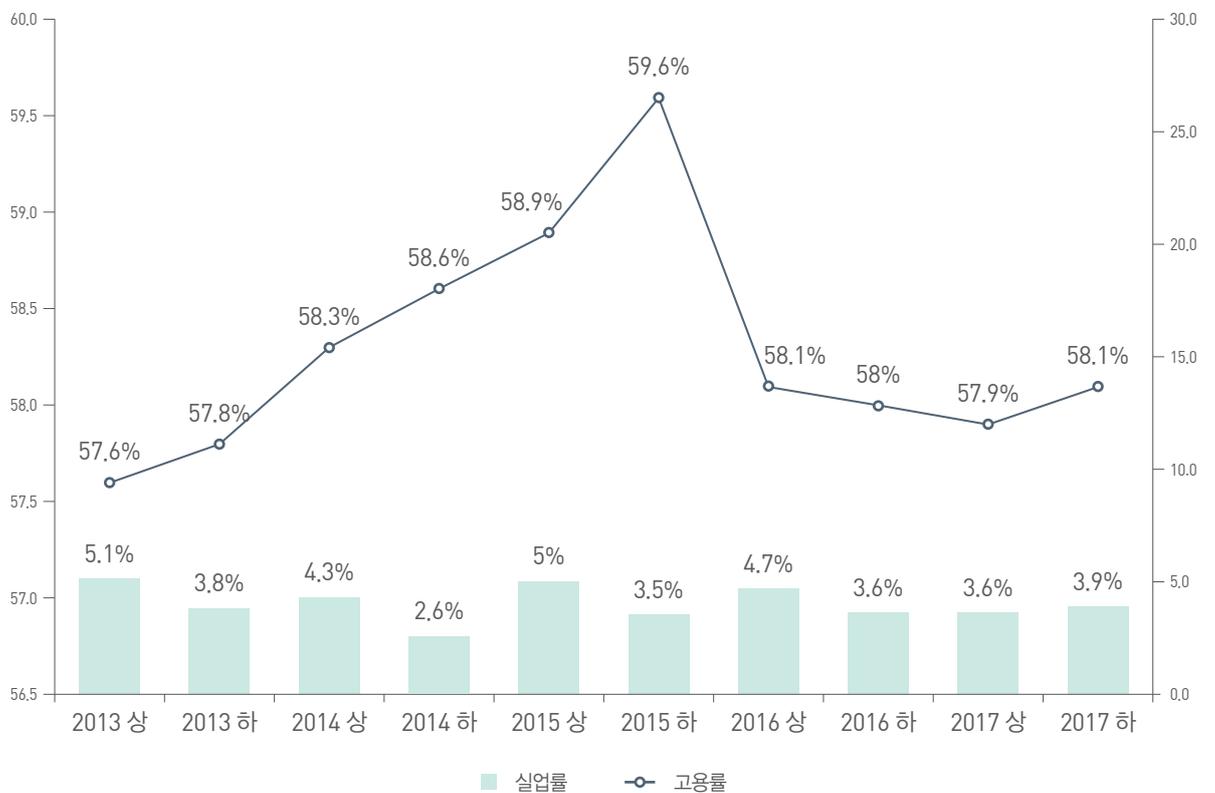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 매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광역단체에 한정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수원시와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함
- 지자체들은 통계청이 연2회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실업률 및 고용률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단위로 구체적인 실업률, 고용률 및 기타 경제지표까지 포함 되어 연도별·지역별 비교가 가능함
-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분석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은 실업률 및 고용률의 수치와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 바 있음
 -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년실업은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므로 수원시의 청년비중과 청년실업에 관련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기로 함
- 선행연구에서 실업률 및 고용률의 표면상 수치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힌바 있음
 - 지자체의 일자리 분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야함
- 본 연구는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수원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수원시 일자리의 질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근무지·거주지기준 취업자 수의 차이와 그 변동을 살펴보고 타지자체와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II. 수원시 고용률 및 실업률

1 경기도 내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고용률은 58.1%로 전반기 대비 0.2%p, 전년동기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고용률(%)	57.6	57.8	58.3	58.6	58.9	59.6	58.1	58.0	57.9	58.1
실업률(%)	5.1	3.8	4.3	2.6	5.0	3.5	4.7	3.6	3.6	3.9

[그림 1] 수원시의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2013~2017)

[표 1] 2017년 하반기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용률·실업률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전년대비 증감률(%p)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수원시	58.0	3.6	58.1	3.9	0.1	0.3
성남시	59.7	3.5	58.2	4.0	-1.5	0.5
의정부시	54.9	4.2	54.8	5.1	-0.1	0.9
안양시	59.1	4.4	58.0	4.6	-1.1	0.2
부천시	58.4	4.8	57.3	3.6	-1.1	-1.2
광명시	57.4	4.3	58.9	3.8	1.5	-0.5
평택시	59.5	1.8	61.4	3.5	1.9	1.7
동두천시	51.5	4.6	55.1	5.1	3.6	0.5
안산시	59.2	3.8	59.0	5.3	-0.2	1.5
고양시	57.1	3.4	55.7	4.0	-1.4	0.6
과천시	52.6	3.9	53.0	4.8	0.4	0.9
구리시	58.1	4.0	57.7	4.0	-0.4	0
남양주시	56.8	4.0	55.0	3.6	-1.8	-0.4
오산시	61.5	2.1	63.1	4.0	1.6	1.9
시흥시	60.1	3.2	59.0	3.8	-1.1	0.6
군포시	58.9	4.5	57.6	4.7	-1.3	0.2
의왕시	56.6	3.9	58.6	3.4	2	-0.5
하남시	58.4	2.8	60.2	2.6	1.8	-0.2
용인시	56.1	3.2	55.5	4.3	-0.6	1.1
파주시	60.4	2.9	58.2	3.2	-2.2	0.3
이천시	65.4	2.3	64.1	4.2	-1.3	1.9
안성시	62.2	1.7	65.0	3.4	2.8	1.7
김포시	59.7	3.6	57.0	2.7	-2.7	-0.9
화성시	62.0	1.2	62.7	3.2	0.7	2
광주시	60.2	3.0	61.2	4.6	1	1.6
양주시	58.6	3.7	56.5	3.4	-2.1	-0.3
포천시	59.8	1.4	59.4	4.0	-0.4	2.6
여주시	60.5	1.6	58.2	2.2	-2.3	0.6
연천군	60.4	0.3	64.5	1.7	4.1	1.4
가평군	62.3	0.9	59.1	1.8	-3.2	0.9
양평군	58.1	2.1	59.1	1.4	1	-0.7
경기도 평균	58.8	3.3	58.2	3.9	-0.6	0.6

○ 2017년 하반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실업률 상위 10개 시·군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으며, 수원시는 3.9%로 경기도 내에서 15위를 기록

- 2016년 하반기 : 11위(3.6%) → 2017년 하반기 : 15위(3.9%)

[표 2] 2017년 하반기 경기도 실업률 상위

순위	실업률	
	시·군	비율(%)
1	안산시	5.3
2	의정부시	5.1
3	동두천시	5.1
4	과천시	4.8
5	군포시	4.7
6	안양시	4.6
7	광주시	4.6
8	용인시	4.3
9	이천시	4.2
10	양주시	4.0
	·	
	·	
	·	
15	수원시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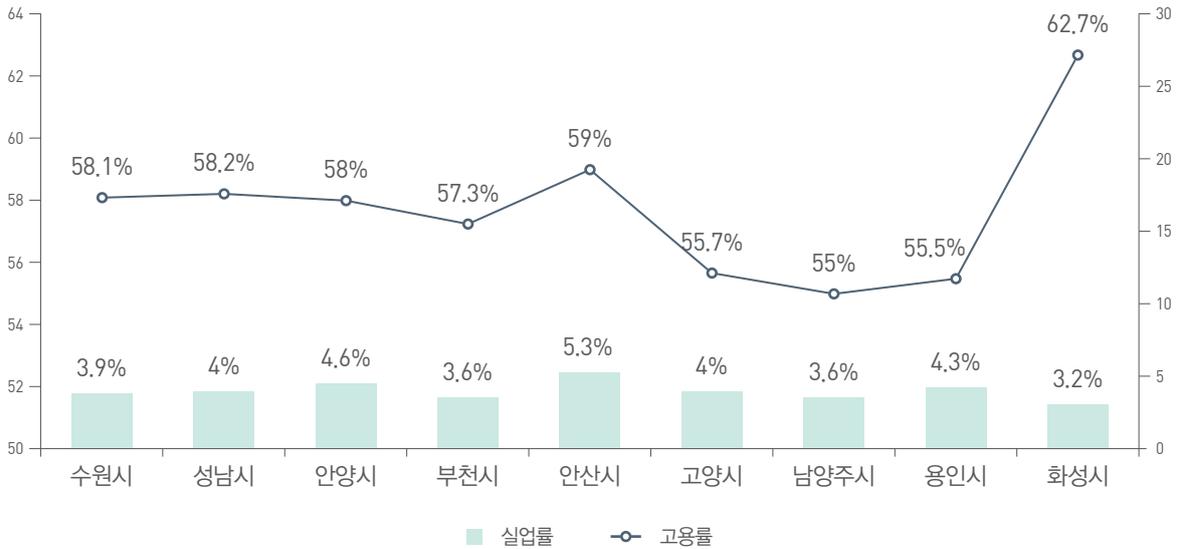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8)

○ 2017년 하반기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화성시의 고용률이 62.7%로 가장 높고, 실업률은 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기준 경기도 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시(116만명), 고양시(98만명), 용인시(96만명), 성남시(93만명), 부천시(82만명), 안산시(68만명), 남양주시(63만명), 화성시(61만명), 안양시(57만명)임

[표 3]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고용률, 실업률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전년대비 증감률(%p)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수원시	58.0	3.6	58.1	3.9	0.1	0.3
성남시	59.7	3.5	58.2	4.0	-1.5	0.5
안양시	59.1	4.4	58.0	4.6	-1.1	0.2
부천시	58.4	4.8	57.3	3.6	-1.1	-1.2
안산시	59.2	3.8	59.0	5.3	-0.2	1.5
고양시	57.1	3.4	55.7	4.0	-1.4	0.6
남양주시	56.8	4.0	55.0	3.6	-1.8	-0.4
용인시	56.1	3.2	55.5	4.3	-0.6	1.1
화성시	62.0	1.2	62.7	3.2	0.7	2



[그림 2]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고용률, 실업률 (2017년 하반기)

2 경기도 내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62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만 4천명 (0.2%p) 증가하였음

[표 4]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p)

시·군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017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증감	
			증감	증감률
수원시	606.5 (60.2)	620.3 (60.4)	13.8	0.2
성남시	520.1 (61.9)	491.5 (60.6)	-28.6	-1.3
의정부시	214 (57.3)	210.8 (57.7)	-3.2	0.4
안양시	317.1 (61.8)	301.9 (60.9)	-15.2	-0.9
부천시	450.5 (61.3)	434.3 (59.4)	-16.2	-1.9
광명시	173 (60)	169.8 (61.3)	-3.2	1.3
평택시	235.2 (60.6)	257.4 (63.7)	22.2	3.1
동두천시	44.6 (54)	48.2 (58)	3.6	4
안산시	364 (61.5)	392.5 (62.3)	28.5	0.8
고양시	519.7 (59.1)	493.9 (58)	-25.8	-1.1
과천시	30.7 (54.7)	25 (55.7)	-5.7	1
구리시	98.4 (60.5)	97.1 (60.1)	-1.3	-0.4

시·군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017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증감	
			증감	증감률
남양주시	325.3 (59.1)	305.5 (57.1)	-19.8	-2
오산시	110.5 (62.8)	117.1 (65.8)	6.6	3
시흥시	208.6 (62.1)	229.5 (61.4)	20.9	-0.7
군포시	149.3 (61.7)	143.7 (60.4)	-5.6	-1.3
의왕시	79.6 (58.8)	79 (60.7)	-0.6	1.9
하남시	98.1 (60)	115.4 (61.8)	17.3	1.8
용인시	470.5 (57.9)	478.6 (58)	8.1	0.1
파주시	220.3 (62.1)	212.1 (60.2)	-8.2	-1.9
이천시	117.7 (66.9)	122.2 (66.9)	4.5	0
안성시	101.4 (58.9)	114.4 (67.3)	13	8.4
김포시	182.7 (61.9)	187.4 (58.6)	4.7	-3.3
화성시	315.9 (62.8)	365.2 (64.8)	49.3	-2.0
광주시	168.5 (62)	184.1 (64.1)	15.6	2.1
양주시	103 (60.8)	102.7 (58.4)	-0.3	-2.4
포천시	75.7 (49)	85.7 (61.9)	10	12.9
여주시	59.5 (37.3)	57.4 (59.5)	-2.1	22.2
연천군	23 (15)	23.6 (13)	0.6	-2
가평군	32.7 (19.3)	30.5 (21.1)	-2.2	1.8
양평군	54.8 (37.5)	56.1 (38.9)	1.3	1.4
경기도	6471 (60.7)	6553 (60.6)	8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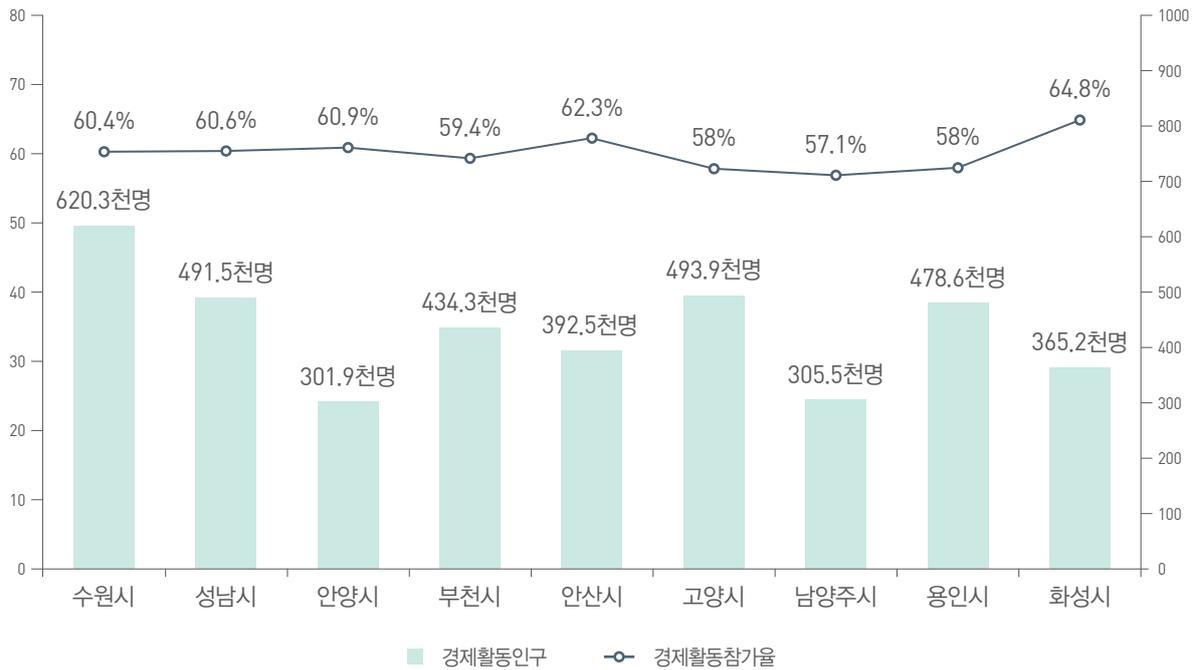
○ 경기도 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9개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 (64.8%)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원시의 경제활동인구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으나,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9개 도시 중 5위

[표 5]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p)

시·군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017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증감	
			증감	증감률
수원시	606.5 (60.2)	620.3 (60.4)	13.8	0.2
성남시	520.1 (61.9)	491.5 (60.6)	-28.6	-1.3
안양시	317.1 (61.8)	301.9 (60.9)	-15.2	-0.9
부천시	450.5 (61.3)	434.3 (59.4)	-16.2	-1.9
안산시	364 (61.5)	392.5 (62.3)	28.5	0.8
고양시	519.7 (59.1)	493.9 (58)	-25.8	-1.1
남양주시	325.3 (59.1)	305.5 (57.1)	-19.8	-2
용인시	470.5 (57.9)	478.6 (58)	8.1	0.1
화성시	315.9 (62.8)	365.2 (64.8)	49.3	-2.0



[그림 3]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경제활동인구 (2017년 하반기)

3 경기도 내 취업자 특성

○ 취업자 및 고용률

- (취업자)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취업자 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59만 6천명이며, 전년 동기대비 약 9천 명 가량 증가
- 경기도 내에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화성시(2만 7천명)이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성남시(-1만 4천명)임
- (고용률) 수원시의 고용률은 58.1%로 전년 동기대비 0.1%p 상승
-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안성시(65%)이며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53%)이고,
- 전년대비 고용률 증가폭이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시(3.9%p)이고,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4.5%p로 가평균임

[표 6] 경기도 31개 시·군의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 %p)

시·군	2016년 하반기 취업자 (고용률)	2017년 하반기 취업자 (고용률)	증감	
			증감	증감률
수원시	586.8 (58)	596.2 (58.1)	9.4	0.1
성남시	486.1 (59.7)	471.7 (58.2)	-14.4	-1.5
의정부시	197.9 (54.8)	200.1 (54.8)	2.2	0
안양시	293.1 (59)	287.9 (58)	-5.2	-1
부천시	423.7 (58.3)	418.5 (57.3)	-5.2	-1
광명시	161.4 (57.5)	163.4 (58.9)	2	1.4
평택시	234.6 (60)	248.4 (61.4)	13.8	1.4
동두천시	42.6 (51.2)	45.8 (55.1)	3.2	3.9
안산시	381.2 (59.8)	371.7 (59)	-9.5	-0.8
고양시	479.9 (57.1)	474.3 (55.7)	-5.6	-1.4
과천시	27.3 (52.8)	23.8 (53)	-3.5	0.2
구리시	90.6 (58.1)	93.3 (57.7)	2.7	-0.4
남양주시	298.8 (56.7)	294.6 (55)	-4.2	-1.7
오산시	106.6 (61.3)	112.4 (63.1)	5.8	1.8
시흥시	219.9 (60.9)	220.7 (59)	0.8	-1.9
군포시	140.5 (58.9)	136.9 (57.6)	-3.6	-1.3
의왕시	73.6 (56.3)	76.3 (58.6)	2.7	2.3
하남시	94.9 (58.4)	112.4 (60.2)	17.5	1.8
용인시	448.2 (55.7)	457.9 (55.5)	9.7	-0.2
파주시	208.1 (60.3)	205.3 (58.2)	-2.8	-2.1
이천시	116.8 (65.5)	117.1 (64.1)	0.3	-1.4
안성시	104.8 (62.4)	110.6 (65)	5.8	2.6
김포시	180.2 (60.5)	182.2 (57)	2	-3.5
화성시	326 (62.7)	353.6 (62.7)	27.6	0
광주시	163.3 (60.5)	175.7 (61.2)	12.4	0.7
양주시	99.6 (58.8)	99.2 (56.5)	-0.4	-2.3
포천시	84.3 (60.7)	82.2 (59.4)	-2.1	-1.3
여주시	57.1 (60.3)	56.1 (58.2)	-1	-2.1
연천군	22.1 (60)	23.2 (63.4)	1.1	3.4
가평군	31.8 (62.5)	29.9 (58)	-1.9	-4.5
양평군	52.5 (57.7)	55.3 (58.2)	2.8	0.5
경기도	6234.3 (58.4)	6296.7 (58.1)	6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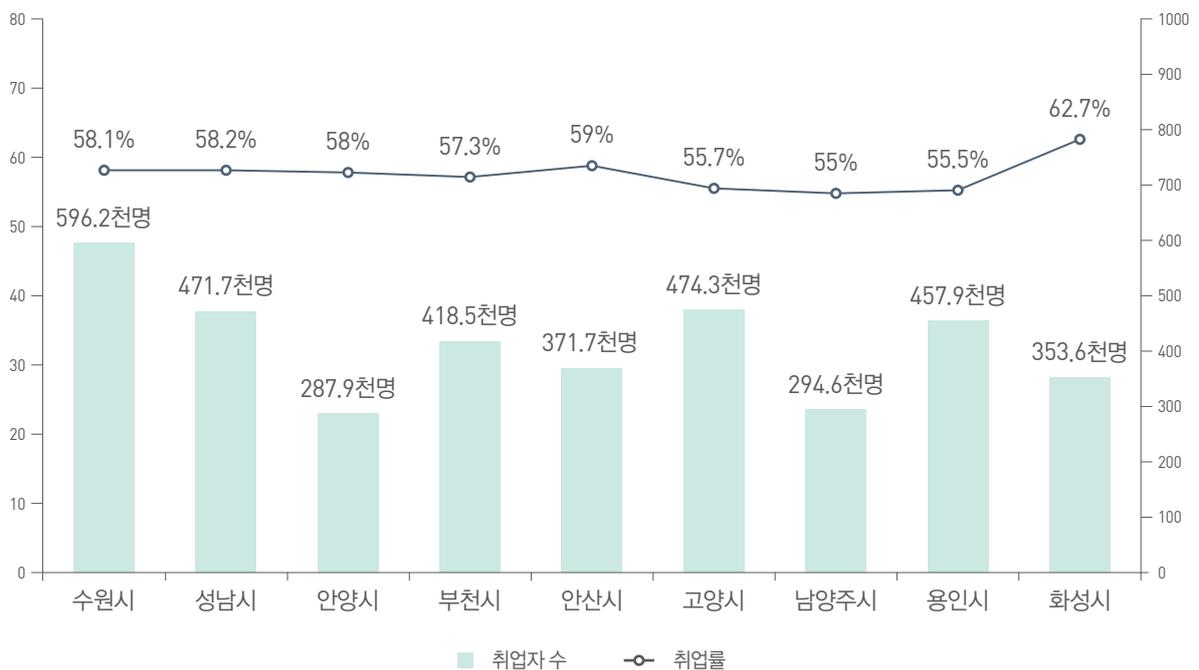
- 2017년 하반기 경기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9곳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화성시(62.7%)이며, 안산시(59%), 성남시(58.2%) 순이며, 이 중 수원시가 4위

-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2017년 하반기의 고용률이 증가한 곳은 수원(0.1%p) 뿐이었으며,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7]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 %p)

시·군	2016년 하반기 취업자 (고용률)	2017년 하반기 취업자 (고용률)	증감	
			증감	증감률
수원시	586.8 (58)	596.2 (58.1)	9.4	0.1
성남시	486.1 (59.7)	471.7 (58.2)	-14.4	-1.5
안양시	293.1 (59)	287.9 (58)	-5.2	-1
부천시	423.7 (58.3)	418.5 (57.3)	-5.2	-1
안산시	381.2 (59.8)	371.7 (59)	-9.5	-0.8
고양시	479.9 (57.1)	474.3 (55.7)	-5.6	-1.4
남양주시	298.8 (56.7)	294.6 (55)	-4.2	-1.7
용인시	448.2 (55.7)	457.9 (55.5)	9.7	-0.2
화성시	326 (62.7)	353.6 (62.7)	27.6	0



[그림 4]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취업자 및 고용률 (2017년 하반기)

○ 성별 취업자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남자 취업자는 35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백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 취업자는 23만 7천명으로 8천 8백 명 증가하여 수원시 전체 취업자 중 여자 취업자 비중이 전년 동기대비 0.1%p 상승
- 경기도에서 남자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와 시흥시(66%)이며 여자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45%)과 연천군(44%)임

[표 8] 경기도 31개 시·군의 성별 취업자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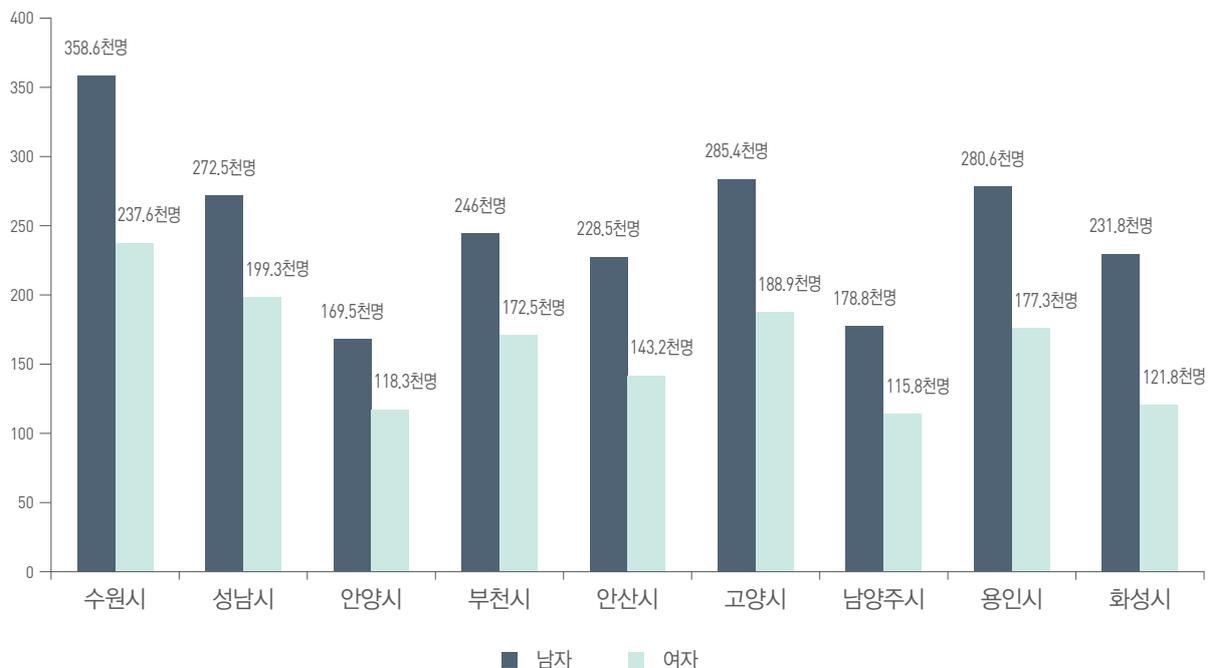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남자(비중)	여자(비중)	계	남자(비중)	여자(비중)	계
수원시	358.1(0.61)	228.8(0.39)	586.8	358.6(0.6)	237.6(0.4)	596.2
성남시	284.5(0.59)	201.6(0.41)	486.1	272.5(0.58)	199.3(0.42)	471.7
의정부시	116.7(0.59)	81.2(0.41)	197.9	116.6(0.58)	83.5(0.42)	200.1
안양시	169.6(0.58)	123.4(0.42)	293.1	169.5(0.59)	118.3(0.41)	287.9
부천시	248.3(0.59)	175.4(0.41)	423.7	246.0(0.59)	172.5(0.41)	418.5
광명시	96.9(0.6)	64.5(0.4)	161.4	95.0(0.58)	68.4(0.42)	163.4
평택시	149.5(0.64)	85.1(0.36)	234.6	155.9(0.63)	92.5(0.37)	248.4
동두천시	25.6(0.6)	17.0(0.4)	42.6	26.8(0.59)	19.0(0.41)	45.8
안산시	240.3(0.63)	140.9(0.37)	381.2	228.5(0.61)	143.2(0.39)	371.7
고양시	281.3(0.59)	198.5(0.41)	479.9	285.4(0.6)	188.9(0.4)	474.3
과천시	15.9(0.58)	11.4(0.42)	27.3	14.0(0.59)	9.9(0.42)	23.8
구리시	53.4(0.59)	37.2(0.41)	90.6	54.6(0.59)	38.7(0.41)	93.3
남양주시	180.0(0.6)	118.8(0.4)	298.8	178.8(0.61)	115.8(0.39)	294.6
오산시	66.7(0.63)	39.8(0.37)	106.6	71.5(0.64)	40.9(0.36)	112.4
시흥시	141.9(0.65)	78.0(0.35)	219.9	145.4(0.66)	75.3(0.34)	220.7
군포시	84.1(0.6)	56.4(0.4)	140.5	82.1(0.6)	54.8(0.4)	136.9
의왕시	43.8(0.6)	29.8(0.4)	73.6	45.4(0.6)	30.9(0.4)	76.3
하남시	55.3(0.58)	39.6(0.42)	94.9	68.6(0.61)	43.8(0.39)	112.4
용인시	272.9(0.61)	175.3(0.39)	448.2	280.6(0.61)	177.3(0.39)	457.9
파주시	126.9(0.61)	81.2(0.39)	208.1	128.6(0.63)	76.8(0.37)	205.3
이천시	68.1(0.58)	48.7(0.42)	116.8	69.3(0.59)	47.8(0.41)	117.1
안성시	64.6(0.62)	40.1(0.38)	104.8	67.7(0.61)	42.9(0.39)	110.6
김포시	113.5(0.63)	66.6(0.37)	180.2	118.3(0.65)	63.9(0.35)	182.2
화성시	213.5(0.65)	112.5(0.35)	326.0	231.8(0.66)	121.8(0.34)	353.6
광주시	100.5(0.62)	62.8(0.38)	163.3	110.2(0.63)	65.4(0.37)	175.7
양주시	61.0(0.61)	38.6(0.39)	99.6	60.4(0.61)	38.8(0.39)	99.2
포천시	52.8(0.63)	31.5(0.37)	84.3	50.2(0.61)	32.0(0.39)	82.2
여주시	34.3(0.6)	22.9(0.4)	57.1	35.0(0.62)	21.1(0.38)	56.1
연천군	13.2(0.6)	8.9(0.4)	22.1	13.0(0.56)	10.2(0.44)	23.2
가평군	18.0(0.57)	13.8(0.43)	31.8	16.5(0.55)	13.4(0.45)	29.9
양평군	30.8(0.59)	21.7(0.41)	52.5	32.2(0.58)	23.1(0.42)	55.3
경기도	3,782(0.61)	2,452(0.39)	6,234.3	3,829(0.61)	2,467.8(0.39)	6,296.7

- 경기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9개 도시 중에서 2017년 하반기에 남자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66%)이고, 여자 취업자 비중은 성남시(42%)가 가장 높음
-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2017년 하반기 남자 취업자 비중은 화성시(66%), 용인·안산·남양주시(61%), 수원·고양시(60%)순이며, 여자 취업자 비중은 성남시(42%), 부천·안양시(41%), 수원·고양시(40%)순임

[표 9]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성별 취업자

(단위: 천명)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남자(비중)	여자(비중)	계	남자(비중)	여자(비중)	계
수원시	358.1(0.61)	228.8(0.39)	586.8	358.6(0.6)	237.6(0.4)	596.2
성남시	284.5(0.59)	201.6(0.41)	486.1	272.5(0.58)	199.3(0.42)	471.7
안양시	169.6(0.58)	123.4(0.42)	293.1	169.5(0.59)	118.3(0.41)	287.9
부천시	248.3(0.59)	175.4(0.41)	423.7	246.0(0.59)	172.5(0.41)	418.5
안산시	240.3(0.63)	140.9(0.37)	381.2	228.5(0.61)	143.2(0.39)	371.7
고양시	281.3(0.59)	198.5(0.41)	479.9	285.4(0.6)	188.9(0.4)	474.3
남양주시	180.0(0.6)	118.8(0.4)	298.8	178.8(0.61)	115.8(0.39)	294.6
용인시	272.9(0.61)	175.3(0.39)	448.2	280.6(0.61)	177.3(0.39)	457.9
화성시	213.5(0.65)	112.5(0.35)	326.0	231.8(0.66)	121.8(0.34)	353.6



[그림 5]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성별 취업자 (2017년 하반기)

○ 청년층(15~29세) 및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청년층 취업자는 10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천 7백 명 (4.9%) 가량 증가하였고,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음
- 수원시의 고령층 취업자는 11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 명(10.5%) 가량 증가하였고,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2%p 상승

[표 10]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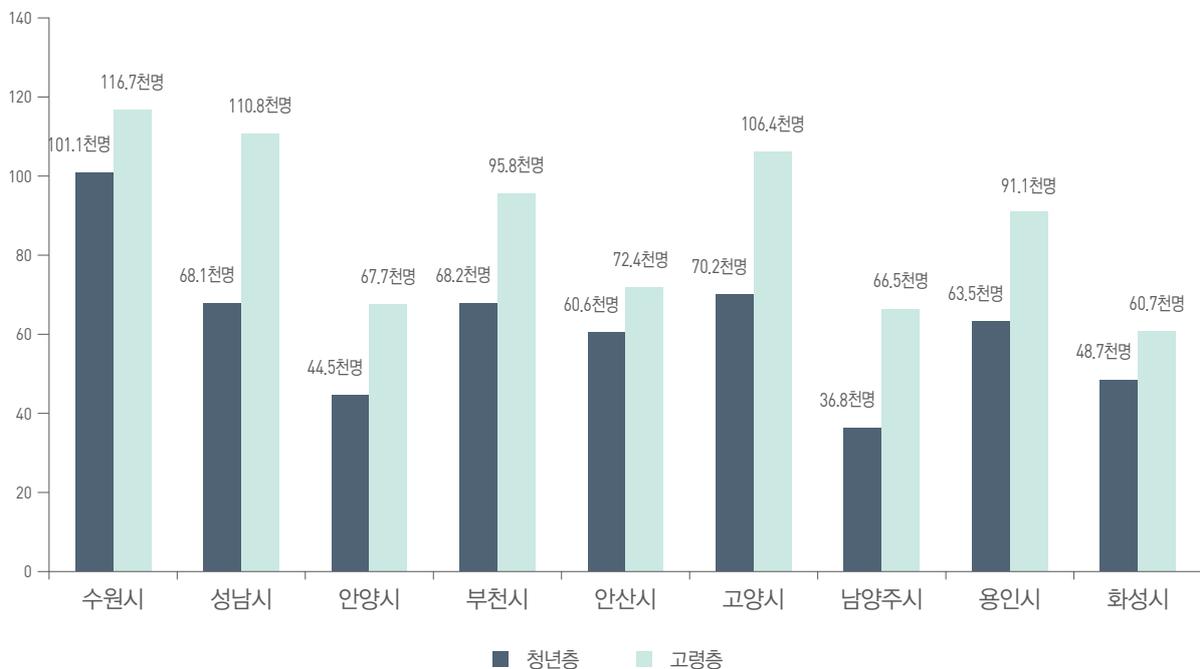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청년층 (비중)	고령층 (비중)	계	청년층 (비중)	고령층 (비중)	계
수원시	96.4(0.16)	105.6(0.18)	586.8	101.1(0.17)	116.7(0.2)	596.2
성남시	73.0(0.15)	110.9(0.23)	486.1	68.1(0.14)	110.8(0.23)	471.7
의정부시	27.6(0.14)	43.8(0.22)	197.9	27.4(0.14)	48.0(0.24)	200.1
안양시	47.9(0.16)	63.7(0.22)	293.1	44.5(0.15)	67.7(0.24)	287.9
부천시	63.1(0.15)	98.5(0.23)	423.7	68.2(0.16)	95.8(0.23)	418.5
광명시	20.1(0.12)	35.2(0.22)	161.4	21.5(0.13)	38.4(0.24)	163.4
평택시	35.5(0.15)	51.0(0.22)	234.6	38.4(0.15)	54.2(0.22)	248.4
동두천시	6.0(0.14)	11.0(0.26)	42.6	6.5(0.14)	11.9(0.26)	45.8
안산시	62.3(0.16)	71.1(0.19)	381.2	60.6(0.16)	72.4(0.19)	371.7
고양시	71.7(0.15)	98.4(0.21)	479.9	70.2(0.15)	106.4(0.22)	474.3
과천시	3.0(0.11)	6.6(0.24)	27.3	2.6(0.11)	5.8(0.24)	23.8
구리시	12.7(0.14)	21.0(0.23)	90.6	13.1(0.14)	21.8(0.23)	93.3
남양주시	36.5(0.12)	67.0(0.22)	298.8	36.8(0.12)	66.5(0.23)	294.6
오산시	16.2(0.15)	17.5(0.16)	106.6	17.7(0.16)	19.3(0.17)	112.4
시흥시	32.7(0.15)	38.1(0.17)	219.9	33.7(0.15)	39.9(0.18)	220.7
군포시	22.2(0.16)	30.2(0.21)	140.5	20.6(0.15)	29.0(0.21)	136.9
의왕시	10.0(0.14)	17.9(0.24)	73.6	10.5(0.14)	19.5(0.26)	76.3
하남시	11.2(0.12)	22.7(0.24)	94.9	15.0(0.13)	28.7(0.26)	112.4
용인시	67.1(0.15)	82.6(0.18)	448.2	63.5(0.14)	91.1(0.2)	457.9
파주시	31.3(0.15)	43.9(0.21)	208.1	28.9(0.14)	47.7(0.23)	205.3
이천시	19.8(0.17)	29.5(0.25)	116.8	18.4(0.16)	30.4(0.26)	117.1
안성시	15.6(0.15)	29.4(0.28)	104.8	16.4(0.15)	31.8(0.29)	110.6
김포시	23.8(0.13)	39.5(0.22)	180.2	22.9(0.13)	37.5(0.21)	182.2
화성시	46.1(0.14)	59.0(0.18)	326.0	48.7(0.14)	60.7(0.17)	353.6
광주시	22.2(0.14)	35.2(0.22)	163.3	24.4(0.14)	38.9(0.22)	175.7
양주시	15.0(0.15)	24.9(0.25)	99.6	11.6(0.12)	24.3(0.24)	99.2
포천시	12.8(0.15)	24.7(0.29)	84.3	11.9(0.14)	24.6(0.3)	82.2
여주시	7.5(0.13)	18.4(0.32)	57.1	7.1(0.13)	19.1(0.34)	56.1
연천군	2.6(0.12)	9.4(0.43)	22.1	2.4(0.1)	10.6(0.46)	23.2
가평군	2.9(0.09)	13.7(0.43)	31.8	2.2(0.07)	12.5(0.42)	29.9
양평군	5.1(0.1)	21.4(0.41)	52.5	4.7(0.08)	24.2(0.44)	55.3
경기도	919.9(0.15)	1,341.8(0.22)	6,234.3	919.6(0.15)	1,406.2(0.22)	6,296.7

- 경기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9곳 중 수원시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대비 청년층 취업자 비중 상승
- 경기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중,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안양시가 24%로 가장 높고, 화성시가 17%로 가장 낮음

[표 11]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단위: 천명)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청년층 (비중)	고령층 (비중)	계	청년층 (비중)	고령층 (비중)	계
수원시	96.4(0.16)	105.6(0.18)	586.8	101.1(0.17)	116.7(0.2)	596.2
성남시	73.0(0.15)	110.9(0.23)	486.1	68.1(0.14)	110.8(0.23)	471.7
안양시	47.9(0.16)	63.7(0.22)	293.1	44.5(0.15)	67.7(0.24)	287.9
부천시	63.1(0.15)	98.5(0.23)	423.7	68.2(0.16)	95.8(0.23)	418.5
안산시	62.3(0.16)	71.1(0.19)	381.2	60.6(0.16)	72.4(0.19)	371.7
고양시	71.7(0.15)	98.4(0.21)	479.9	70.2(0.15)	106.4(0.22)	474.3
남양주시	36.5(0.12)	67.0(0.22)	298.8	36.8(0.12)	66.5(0.23)	294.6
용인시	67.1(0.15)	82.6(0.18)	448.2	63.5(0.14)	91.1(0.2)	457.9
화성시	46.1(0.14)	59.0(0.18)	326.0	48.7(0.14)	60.7(0.17)	353.6



[그림 6]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임금근로자)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임금근로자는 49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 4천명(3%)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비중은 84%로 전년 동기대비 2%p 상승
-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수원시와 성남시가 84%로 동일하며, 가장 낮은 곳은 양평군(50%)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수원시의 비임금근로자는 9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천명(-4.9%)가량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6%로 2%p 하락
- 수원시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성남시(16%)와 함께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평군(50%)과 가평군(49%)임

[표 12] 경기도 31개 시·군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임금근로자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계	임금근로자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계
수원시	483.8(0.82)	103.1(0.18)	586.8	498.1(0.84)	98.0(0.16)	596.2
성남시	401.6(0.83)	84.5(0.17)	486.1	396.1(0.84)	75.6(0.16)	471.7
의정부시	153.4(0.78)	44.5(0.22)	197.9	155.3(0.78)	44.9(0.22)	200.1
안양시	240.3(0.82)	52.7(0.18)	293.1	233.2(0.81)	54.7(0.19)	287.9
부천시	330.3(0.78)	93.3(0.22)	423.7	325.9(0.78)	92.6(0.22)	418.5
광명시	128.5(0.8)	32.9(0.2)	161.4	126.6(0.77)	36.8(0.23)	163.4
평택시	184.1(0.78)	50.5(0.22)	234.6	195.7(0.79)	52.7(0.21)	248.4
동두천시	33.2(0.78)	9.4(0.22)	42.6	36.2(0.79)	9.5(0.21)	45.8
안산시	300.2(0.79)	81.0(0.21)	381.2	296.9(0.8)	74.8(0.2)	371.7
고양시	381.1(0.79)	98.7(0.21)	479.9	365.3(0.77)	109.0(0.23)	474.3
과천시	22.5(0.82)	4.8(0.18)	27.3	18.8(0.79)	5.0(0.21)	23.8
구리시	67.7(0.75)	22.9(0.25)	90.6	72.9(0.78)	20.4(0.22)	93.3
남양주시	221.6(0.74)	77.2(0.26)	298.8	221.3(0.75)	73.3(0.25)	294.6
오산시	87.2(0.82)	19.4(0.18)	106.6	93.2(0.83)	19.2(0.17)	112.4
시흥시	176.0(0.8)	43.8(0.2)	219.9	180.6(0.82)	40.1(0.18)	220.7
군포시	115.1(0.82)	25.5(0.18)	140.5	112.2(0.82)	24.6(0.18)	136.9
의왕시	59.0(0.8)	14.5(0.2)	73.6	60.9(0.8)	15.4(0.2)	76.3
하남시	70.8(0.75)	24.1(0.25)	94.9	78.9(0.7)	33.5(0.3)	112.4
용인시	367.2(0.82)	80.9(0.18)	448.2	363.7(0.79)	94.2(0.21)	4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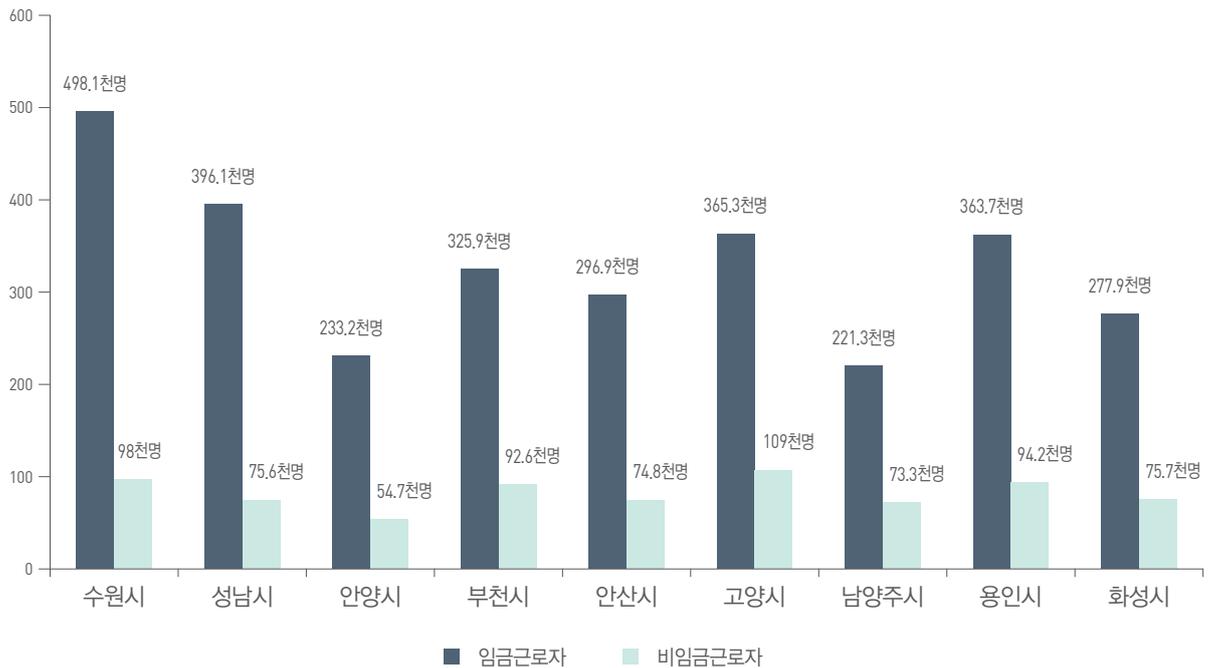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임금근로자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계	임금근로자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계
파주시	163.3(0.78)	44.8(0.22)	208.1	153.0(0.75)	52.4(0.26)	205.3
이천시	83.7(0.72)	33.1(0.28)	116.8	88.4(0.75)	28.7(0.25)	117.1
안성시	71.6(0.68)	33.2(0.32)	104.8	79.3(0.72)	31.3(0.28)	110.6
김포시	139.3(0.77)	40.8(0.23)	180.2	136.2(0.75)	46.0(0.25)	182.2
화성시	255.2(0.78)	70.8(0.22)	326.0	277.9(0.79)	75.7(0.21)	353.6
광주시	123.3(0.76)	40.0(0.24)	163.3	135.3(0.77)	40.4(0.23)	175.7
양주시	70.0(0.7)	29.6(0.3)	99.6	75.2(0.76)	24.0(0.24)	99.2
포천시	53.6(0.64)	30.7(0.36)	84.3	54.3(0.66)	27.9(0.34)	82.2
여주시	36.3(0.64)	20.8(0.36)	57.1	37.6(0.67)	18.6(0.33)	56.1
연천군	12.0(0.54)	10.1(0.46)	22.1	12.4(0.53)	10.8(0.47)	23.2
가평군	17.3(0.54)	14.5(0.46)	31.8	15.2(0.51)	14.7(0.49)	29.9
양평군	27.5(0.52)	25.0(0.48)	52.5	27.5(0.5)	27.8(0.5)	55.3
경기도	4,876.7(0.78)	1,357.1(0.22)	6,234.3	4,924.1(0.78)	1,372.6(0.22)	6,296.7

- 경기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9곳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75%이상 수준으로 안양(-1%p)과 고양(-2%p), 용인(-3%p)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기대비 1~2%p 가량 상승하였음

[표 13]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임금근로자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계	임금근로자 (비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계
수원시	483.8(0.82)	103.1(0.18)	586.8	498.1(0.84)	98.0(0.16)	596.2
성남시	401.6(0.83)	84.5(0.17)	486.1	396.1(0.84)	75.6(0.16)	471.7
안양시	240.3(0.82)	52.7(0.18)	293.1	233.2(0.81)	54.7(0.19)	287.9
부천시	330.3(0.78)	93.3(0.22)	423.7	325.9(0.78)	92.6(0.22)	418.5
안산시	300.2(0.79)	81.0(0.21)	381.2	296.9(0.8)	74.8(0.2)	371.7
고양시	381.1(0.79)	98.7(0.21)	479.9	365.3(0.77)	109.0(0.23)	474.3
남양주시	221.6(0.74)	77.2(0.26)	298.8	221.3(0.75)	73.3(0.25)	294.6
용인시	367.2(0.82)	80.9(0.18)	448.2	363.7(0.79)	94.2(0.21)	457.9
화성시	255.2(0.78)	70.8(0.22)	326.0	277.9(0.79)	75.7(0.21)	353.6



[그림 7]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4 경기도 내 실업자 및 실업률

- 2017년 하반기 수원시 실업자 수는 2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천 5백 명(11%)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기대비 0.1%p 상승하였음
 - 수원시의 실업률은 경기도 평균 실업률과 같은 3.9%였으며, 경기도 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양평군(1.4%)이며, 연천군(1.7%), 가평군(1.8%), 여주시(2.2%)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곳은 안산시로 실업률이 5.3%로 전년 동기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가 5.1%, 과천시 4.8%, 군포시 4.7% 등의 순이었음

[표 14] 경기도 31개 시·군의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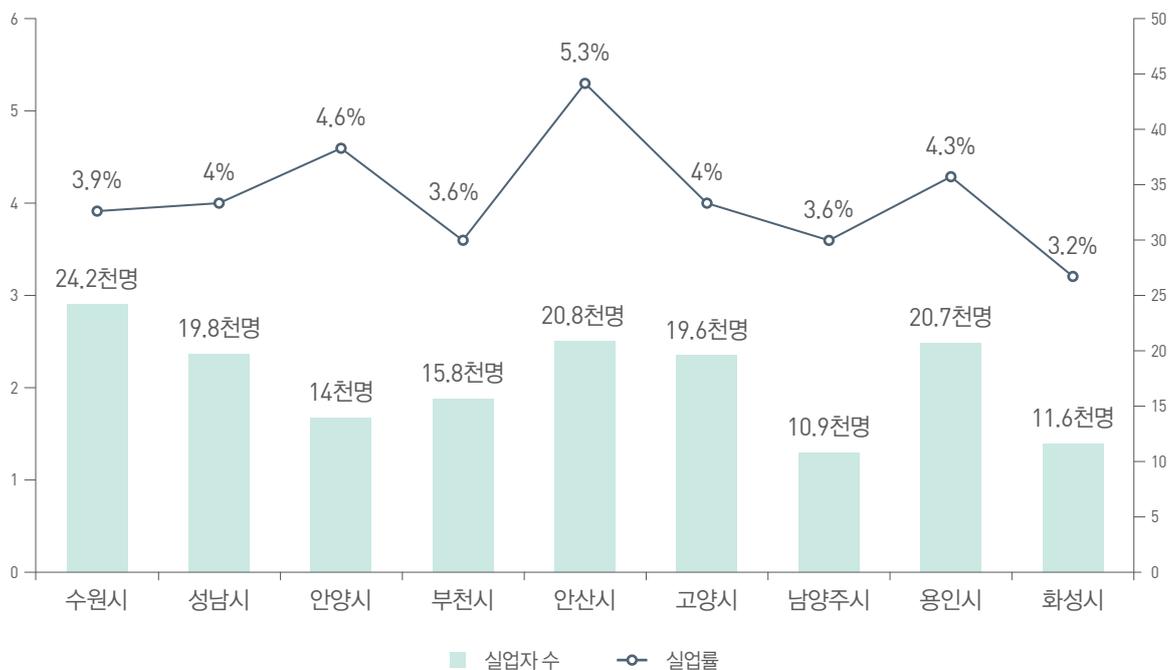
시·군	2016년 하반기실업자 (실업률)	2017년 하반기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	증감률
수원시	21.7 (3.6)	24.2 (3.9)	2.5	0.3
성남시	16.9 (3.4)	19.8 (4)	2.9	0.6
의정부시	8.5 (4.1)	10.6 (5.1)	2.1	1.0
안양시	13.3 (4.3)	14 (4.6)	0.7	0.3
부천시	20.7 (4.7)	15.8 (3.6)	-4.9	-1.1
광명시	7.2 (4.2)	6.4 (3.8)	-0.8	-0.4
평택시	4.3 (1.8)	9 (3.5)	4.7	1.7
동두천시	2 (4.5)	2.4 (5.1)	0.4	0.6
안산시	15.1 (3.8)	20.8 (5.3)	5.7	1.5
고양시	16.3 (3.3)	19.6 (4)	3.3	0.7
과천시	1.1 (3.8)	1.2 (4.8)	0.1	1.0
구리시	3.6 (3.9)	3.9 (4)	0.3	0.1
남양주시	12.1 (3.9)	10.9 (3.6)	-1.2	-0.3
오산시	2.3 (2.1)	4.7 (4)	2.4	1.9
시흥시	7.2 (3.2)	8.8 (3.8)	1.6	0.6
군포시	6.5 (4.4)	6.8 (4.7)	0.3	0.3
의왕시	2.9 (3.8)	2.7 (3.4)	-0.2	-0.4
하남시	2.6 (2.7)	3 (2.6)	0.4	-0.1
용인시	15.1 (3.3)	20.7 (4.3)	5.6	1.0
파주시	6.1 (2.8)	6.8 (3.2)	0.7	0.4
이천시	2.9 (2.4)	5.2 (4.2)	2.3	1.8
안성시	1.9 (1.7)	3.9 (3.4)	2.0	1.7
김포시	6.8 (3.6)	5.2 (2.7)	-1.6	-0.9
화성시	4.1 (1.2)	11.6 (3.2)	7.5	2.0
광주시	5.1 (3)	8.4 (4.6)	3.3	1.6
양주시	3.8 (3.7)	3.4 (3.4)	-0.4	-0.3
포천시	1.4 (1.7)	3.4 (4)	2.0	2.3
여주시	1 (1.7)	1.3 (2.2)	0.3	0.5
연천군	0.1 (0.3)	0.4 (1.7)	0.3	1.4
가평군	0.3 (0.9)	0.6 (1.8)	0.3	0.9
양평군	1.2 (2.2)	0.8 (1.4)	-0.4	-0.8
경기도	214.1 (3.3)	256.3 (3.9)	42.2	0.6

-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실업률은 화성시가 3.2%로 가장 낮고 안산시가 5.3%로 가장 높음
- 2016년 하반기 대비 2017년 하반기에 실업률의 증감률이 가장 큰 곳은 화성시로 실업률이 2.0%p 상승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안산시가 1.5%p, 용인시가 1.0%p 상승하였음

[표 15]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p)

시·군	2016년 하반기 실업자 (실업률)	2017년 하반기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	증감률
수원시	21.7 (3.6)	24.2 (3.9)	2.5	0.3
성남시	16.9 (3.4)	19.8 (4)	2.9	0.6
안양시	13.3 (4.3)	14 (4.6)	0.7	0.3
부천시	20.7 (4.7)	15.8 (3.6)	-4.9	-1.1
안산시	15.1 (3.8)	20.8 (5.3)	5.7	1.5
고양시	16.3 (3.3)	19.6 (4)	3.3	0.7
남양주시	12.1 (3.9)	10.9 (3.6)	-1.2	-0.3
용인시	15.1 (3.3)	20.7 (4.3)	5.6	1.0
화성시	4.1 (1.2)	11.6 (3.2)	7.5	2.0



[그림 8]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실업자 및 실업률

5 경기도 내 비경제활동인구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40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천 6백 명 (0.6%) 증가
 -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017년 하반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김포시로 전년 동기대비 21.8천 명이 증가하였고, 부천시와 고양시가 14.5천 명, 남양주시가 13.8천 명 증가하였음
 -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안성시로 5천 6백 명이 감소하였고, 평택시가 5천 5백 명, 광명시가 5천 명 감소함

[표 16]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증감
수원시	403.3	405.9	2.6
성남시	311.7	319.5	7.8
의정부시	154.5	154.4	-0.1
안양시	190.4	194.2	3.8
부천시	281.8	296.3	14.5
광명시	112.4	107.4	-5.0
평택시	152.4	146.9	-5.5
동두천시	38.6	34.9	-3.7
안산시	240.7	238.0	-2.7
고양시	343.7	358.2	14.5
과천시	23.3	19.9	-3.4
구리시	61.7	64.6	2.9
남양주시	216.1	229.9	13.8
오산시	65.0	60.9	-4.1
시흥시	134.1	144.5	10.4
군포시	91.5	94.1	2.6
의왕시	54.3	51.2	-3.1
하남시	65.0	71.2	6.2
용인시	340.7	345.8	5.1
파주시	130.7	140.5	9.8
이천시	58.7	60.4	1.7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증감
안성시	61.2	55.6	-5.6
김포시	110.8	132.6	21.8
화성시	189.7	198.4	8.7
광주시	101.7	103.2	1.5
양주시	66.0	73.1	7.1
포천시	53.1	52.8	-0.3
여주시	36.7	39.1	2.4
연천군	14.7	13.0	-1.7
가평군	18.8	21.1	2.3
양평군	37.3	38.9	1.6
경기도	4,160.6	4,266.5	105.9

- 경기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안산시(-2천 7백 명)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고양시(1만 4천명)이고 수원시의 증가 폭이 가장 작음

[표 17]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시·군	2016년 하반기	2017년 하반기	증감
수원시	403.3	405.9	2.6
성남시	311.7	319.5	7.8
안양시	190.4	194.2	3.8
부천시	281.8	296.3	14.5
안산시	240.7	238.0	-2.7
고양시	343.7	358.2	14.5
남양주시	216.1	229.9	13.8
용인시	340.7	345.8	5.1
화성시	189.7	198.4	8.7

Ⅲ. 수원시 일자리의 특성

1 근로자 구분 기준

- 근로자 구분 시, 전체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고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나누며 상용근로자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눔
- 아래의 [표 18]은 근로형태를 통한 일자리 구분을 나타내는데, 근로 형태가 화살표의 방향(좌측)으로 진행될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

[표 18] 근로형태를 통한 일자리 구분

일자리 구분	전체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상용 근로자	비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방향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 조용준(2015), 수원시 실업률 유형 분석 연구, p.55

2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살펴 본 수원시 일자리 특성

- 2017년 하반기 154개 시군별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수원시가 83.5%로 2위를 기록(아래의 [표 19] 참조)

[표 19] 155개 기초 시군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순위	지역	비중(%)
대상 지역 (155개 시·군)	1	경기 성남시	84.0
	2	경기 수원시	83.5
	3	경기 오산시	82.9
	4	경기 군포시	82.0
	5	경기 시흥시	81.8

자료: 2017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

[표 20] 경기도 시군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2013		2015		2016		2017		경기도 순위 (2013상/2017하)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기도	76.8		78.4		78.6		78.2		-
수원시	80.8	82.2	84.2	83.2	81.7	82.7	82.6	83.5	7 → 2
성남시	82.5	82.7	83.5	83.2	82.5	83	82.7	84	2 → 1
의정부시	75.7	76.2	76.9	76.9	74.8	77.8	77.9	77.6	16 → 16
안양시	81.1	80.3	80.8	82.3	81.9	82.4	80.6	81	5 → 6
부천시	76.7	76.3	78.1	78.3	80.1	78.3	78.6	77.9	14 → 15
광명시	79.7	79	79.5	78.9	78.8	80	78.2	77.5	8 → 17
평택시	75.7	76.3	77.3	77	78.6	78.4	79.5	78.8	16 → 12
동두천시	76.8	77	76.7	77.5	74.4	77.9	75.8	79	13 → 10
안산시	77.5	77.5	77.4	79.4	79	78.9	79.3	79.9	11 → 7
고양시	78.5	77.1	77.8	80.2	79.3	79.8	80.2	77	10 → 18
과천시	83.1	83.7	82.5	83	83.5	83.1	82.7	79	1 → 11
구리시	75.1	72	73.2	73	75.2	75.1	73.9	78.1	18 → 14
남양주시	72.1	72.3	73.7	73.8	75	74.5	73.8	75.1	20 → 22
오산시	82.5	82.8	81.3	81.4	82.9	82.4	81.7	82.9	2 → 3
시흥시	77.3	77.1	76.9	79.5	78.6	79.9	80.1	81.8	12 → 5
군포시	81.7	81.9	81.9	82.9	82.3	82.2	80.7	82	4 → 4
의왕시	81.1	80.3	81.3	80.1	80.7	80.5	79.4	79.8	5 → 8
하남시	70.5	72.2	74.6	74.4	75.6	74.7	73.9	70.2	24 → 26
용인시	78.8	79.4	79.7	80.3	81.3	82	82.3	79.4	9 → 9
파주시	71.9	74.5	75.8	75.9	77.6	78.5	78.2	74.5	21 → 24
이천시	71.7	70.8	69.8	71.8	73.1	71.1	73	75.5	22 → 21
안성시	65.4	64.4	67	66.2	65.4	67.5	70	71.7	26 → 25
김포시	71.2	68.8	71.9	72.8	74.9	77	75	74.8	23 → 23
화성시	76.2	75.7	76.5	77.8	77.5	77.9	80.8	78.6	15 → 13
광주시	74.3	75	76	75.1	75.6	75.5	77.5	77	19 → 19
양주시	66.7	66.7	71.8	70.2	67.4	70.2	68.8	75.8	25 → 20
포천시	63.2	63.6	65.1	63.7	61.6	61.2	65.6	66.1	27 → 28
여주시	59.5	61.7	62.3	61.1	62.9	63.1	62.6	67	28 → 27
연천군	51.7	50	52.3	54	56.2	54.3	54.7	53.4	29 → 29
가평균	50.2	50.2	50	53.5	52.7	54	51.4	50.8	31 → 30
양평균	50.7	51.7	51.5	52	51	52.1	52.4	49.7	30 → 31

자료: 2017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2016년 하반기에는 전국 155개 기초 지자체 중 수원시가 3위(82.7%)였던 것에 비해 2017년 하반기에는 0.8%p 상승하여 수원시의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이라 기대

[표 21] 전국 시군별 임금근로자 비중의 수원시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원시 순위 (2013상/2017하)
	상반기	하반기									
수원시	7	4	3	3	1	1	6	3	3	2	7→2

- 위의 [표 21]은 155개* 시·군별 임금근로자 비중에서 수원시 순위를 나타냄
 - * 2013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155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에 직업군인이 많은 계룡시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13년 상반기에는 155개 시·군중에 7위를 차지했으나, 점차 개선되어 2015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6위까지 하락하였으나 하반기에 반등하여 2017년 하반기에 2위를 차지
 - 2017년 하반기, 1위(성남시)와 0.5%p 차이로 2위 기록
- 수원시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확인

3 종사자 지위별 증감을 통해 본 수원시 일자리 특성

- 수원시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5년(2013년~2017년)간 수원시 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별 증감 비교 분석 실시
- 2013년 상반기와 2017년도 하반기의 수원시 종사자의 지위별 증감 비교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22]와 같음
-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의 수는 5년 사이 약 8만 5천6백 명, 취업자 중 비중은 8.92%p 증가
 - 반대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약 7천명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중 비중은 2.99%p 감소

[표 22] 2013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증감 비교

전체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인원수(천명)	62.7 증가	비중	2.98%p 증가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인원수(천명)	비중	인원수(천명)	비중	인원수(천명)	비중
85.6 증가	8.92%p 증가	22.8 감소	5.93%p 감소	7 감소	2.99%p 감소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수에서 수원시의 종사자(근로자) 수와 비중이 증가한 경향을 보임
- 특히, 상용근로자의 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임

4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상용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커야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수원시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큰 도시이지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그에 미치지 못함
- 아래 [표 23]은 경기도 시·군별 상용근로자 비중에서 수원시 순위를 나타냄
 - 2013년 상반기에는 72.2%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0위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 하반기에는 80.2%로 6위 기록

[표 23] 경기도 시군별 상용근로자 비중의 수원시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상반기	하반기									
수원시	10	13	9	17	19	20	9	18	1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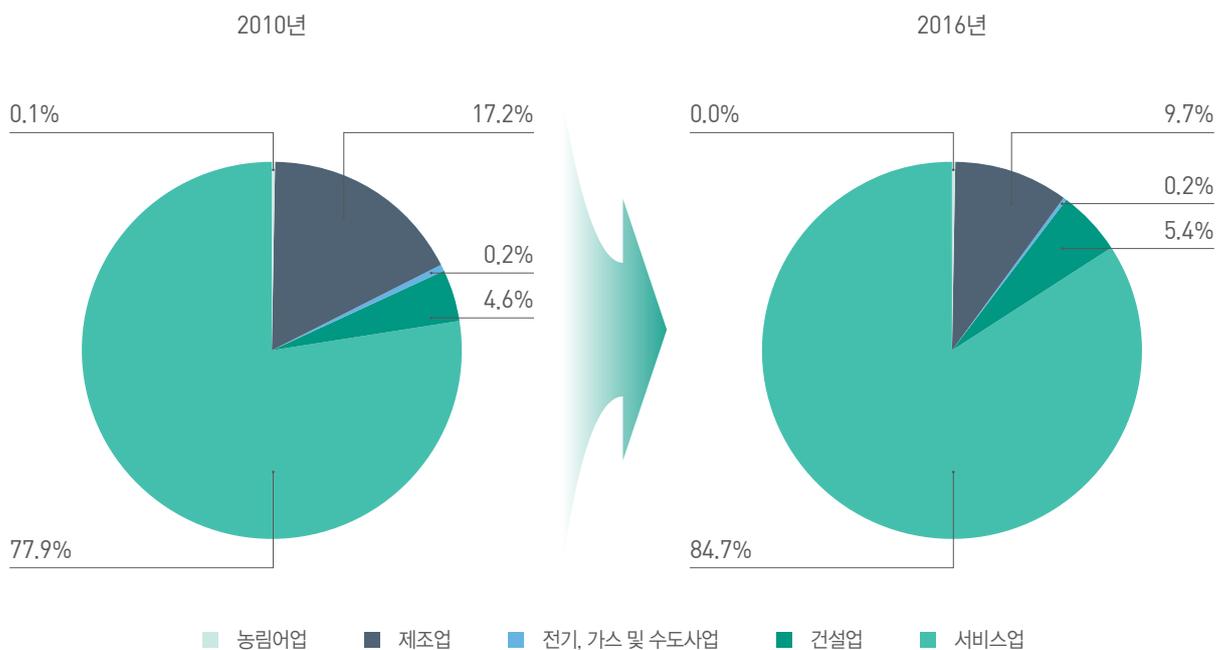
[표 24] 경기도 시군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

(단위 : %)

	2013		2015		2016		2017		경기도 순위 (2013상/2017하)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기도	70.5	71.1	73.4	75.2	74.5	76.1	73.8	76.7	-
수원시	72.2	71.3	70.1	73	75.8	75.1	70.6	80.2	10 → 6
성남시	69.2	69.7	71.7	75	73	74.3	71.7	72.8	15 → 24
의정부시	64.6	66.5	66.2	72.7	69.7	71.1	68.6	76	21 → 15
안양시	73.1	71.2	77	77.7	75.1	78.2	74	81	9 → 3
부천시	69.6	69.9	71.7	73.3	70.7	72.3	67.7	75	14 → 19
광명시	69.2	70.4	74.2	74.4	73.4	74.4	71.6	77.5	15 → 12
평택시	74.1	74.5	77.2	77.2	76.8	75.7	74.9	70	8 → 29
동두천시	59	64.6	73.6	74.6	71	73.2	67.7	76.2	27 → 14
안산시	67.3	66.6	68.9	68.3	70.6	75.8	72.9	70.5	19 → 27
고양시	71.7	72.8	75.4	77.1	75.1	75.9	74.1	77.3	11 → 13
과천시	80.5	80.1	83.1	86	80.2	84.5	83.7	83	1 → 2
구리시	63	67.9	69.1	71.2	67.1	74.8	69.9	70.1	23 → 28
남양주시	64.6	61.8	67.4	71	69.5	77.7	73	74.1	21 → 22
오산시	69	72.4	75.6	77	75.2	75.3	73.4	80.2	17 → 7
시흥시	68.8	68.4	70	72.8	74.4	75.8	72.4	71.2	18 → 26
군포시	75.7	78.4	81	78.8	77.1	79.4	74.6	80.2	5 → 8
의왕시	77.2	76.7	77.4	79.2	77.3	78.6	78.7	79.3	3 → 9
하남시	61.3	60.9	65.1	74.5	73.7	77.7	73	78.8	26 → 10
용인시	78.2	80.8	82.5	82.5	81	81.3	81	77.9	2 → 11
파주시	70.5	72	73	76.2	75.7	76.7	77.2	80.3	13 → 5
이천시	62.5	63.2	66.9	68.8	69.9	68.5	72.3	72.7	24 → 25
안성시	75.5	73.5	76	78.8	80.9	79.8	78.4	75	6 → 20
김포시	74.3	73.7	78	75.7	76.2	78.6	77.9	80.5	7 → 4
화성시	75.8	77.4	79.6	80.8	80.6	81.2	81.5	86.9	4 → 1
광주시	71	74.9	76.1	78.1	73.7	72	74.9	75.5	12 → 17
양주시	65.9	68.6	72.1	75.4	72.8	76.6	72.7	75.7	20 → 16
포천시	62	65.3	67.3	72.2	73.6	71.6	72	75.5	25 → 18
여주시	58.5	56.9	63.4	66.8	69	69.1	70.1	67	28 → 30
연천군	57.9	61.7	65.5	68.4	63.1	74.4	65.5	74.2	29 → 21
가평군	56.3	54.7	66.5	71.8	69	71.4	64.5	66.4	30 → 31
양평군	54.8	55.7	57.9	57.6	68.2	68.8	68.9	73.5	31 → 23

자료: 2017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전국과 경기도 모두 상용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17년 상반기까지 수원시에서는 그런 추세를 감지할 수 없었으나,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비중이 9.6%p이상 상승
 - 2016년까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었으나, 2017년에는 이례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10%p 가까이 상승
 - 이는 일자리의 ‘시간 격차(lag) 현상’이 발생했다는 증거
- 2017년 하반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1위가 수원시(34만 4천명)이고, 용인시(30만 명), 성남시(28만 명), 고양시(27만 9천명) 순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86.9%)이고, 과천(83%), 안양(81%), 김포(80.5%), 파주(80.3%), 수원(80.2%) 순임
- 각 지자체의 인구규모, 산업적 특성 등과 상용근로자 비율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수원시의 산업적 특성상 제조업 등의 순환 이후 그 영향이 반영된 결과일수도 있다는 추측 가능



[그림 9] 수원시의 산업별 종사자수 비교(2010 vs. 2016)

- 2013년 상반기~2017년 하반기까지 종사자 지위별 일자리 증감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는 수원시 서비스업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중 많은 부분이 일용직·임시직임을 의미하는데, 2017년 하반기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급증한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

5 수원시 근무지기준 및 거주지기준 취업자

-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수원시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사람)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원시에 살지만 어디에서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적은 지역으로 집계됨
 - 수원시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492천명,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596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차이는 10만4천명으로 이 수치는 전국 154개 시·군 중 3위에 해당
 - 이는 수원시가 소비도시 내지는 주거형 도시임을 의미

[표 25] 근무지기준 취업자가 더 적은 지역

(단위: 천 명)

	근무지 기준(A)	거주지 기준(B)	차이(A-B)
용인시	336	458	-122
고양시	360	474	-114
수원시	492	596	-104
남양주시	212	295	-83
부천시	349	419	-70
의정부시	142	200	-58
광명시	115	163	-48
오산시	71	112	-41
군포시	98	137	-39
안양시	251	288	-37

자료: 2017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2017년 하반기 수원시의 ‘근무지기준 고용률’과 ‘거주지기준 고용률’의 차이는 -10.1%p로 근무지기준 고용률이 더 적은 지역으로 경기도 내에서 11위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 경기도 내 근무지기준과 거주지기준 고용률 차이 상·하위 지역

(단위: %, %p)

근무지기준 고용률이 더 높은 지역				근무지기준 고용률이 더 낮은 지역			
	근무지기준 (A)	거주지기준 (B)	차이 (A-B)		근무지기준 (A)	거주지기준 (B)	차이 (A-B)
과천시	86.1	53	33.1	오산시	40.1	63.1	-23.0
화성시	82.3	62.7	19.6	의왕시	39.6	58.6	-19.0
포천시	77.1	59.4	17.7	광명시	41.6	59.0	-17.3
이천시	78.9	64.1	14.8	군포시	41.2	57.6	-16.4
평택시	68.4	61.4	7.0	의정부시	39.0	54.8	-15.8
연천군	68.9	63.4	5.5	구리시	42.0	57.7	-15.7
시흥시	62.6	59.0	3.6	남양주시	39.6	55.0	-15.4
성남시	61.7	58.2	3.5	용인시	40.8	55.5	-14.7
안성시	68.5	65.1	3.4	고양시	42.3	55.7	-13.4
파주시	61.0	58.2	2.8	동두천시	43.0	55.1	-12.1
여주시	60.3	58.1	2.2	수원시	48.0	58.1	-10.1
안산시	59.7	59.0	0.7	부천시	47.7	57.3	-9.6
가평군	58.4	58.0	0.4	하남시	51.9	60.2	-8.2
김포시	57.1	57.0	0.1	안양시	50.5	58.0	-7.5
				양평군	54.5	58.2	-3.7
				광주시	58.1	61.2	-3.0
				양주시	54.3	56.5	-2.2

자료: 2017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근무지기준 취업자 수가 거주지기준 취업자 수보다 적은 주요원인 중 하나는 주택문제 (높은 전세가격과 낮은 주택보급률 등)로 인한 수도권 인근 지역 간 인구유입을 상정할 수 있음
 - 김상원 · 이훈래(2016)¹⁾는 인구이동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주거형 도시들(수원시 포함)의 경우에는 인구유입과 전세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주택보급률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함

1 김상원 · 이훈래(2016), 수도권 도시유형별 내부 인구이동 영향요인 분석, pp.741

- 이는 수원시의 인구이동에 전세가격과 주택보급률 등과 같은 주택변수가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작용한 것을 시사함
- 2017년 수원시의 전입자 수는 약 17만 7천명으로 경기도 31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성남시(15만 7천명), 용인시(14만 3천명), 고양시(13만 9천명), 화성시(13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입률의 경우, 2013년 17.4%, 2014년 17%로 전입률 3위였으나, 2017년에는 14.9%로 경기도 31개 도시 중 13위에 해당
 - 이는 수원시가 인구유입이 활발한 도시임을 의미함
 -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시는 지속적인 인구순유입을 기록
- 2017년 수원시는 시·도간 전입(46,620명)보다 경기도내 전입(49,412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에서도 공통된 추세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절벽시대에는 자연출산율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향후 수원시의 인구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외부의 인구들이 수원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 설립 필요

IV. 요약

1 수원시 일자리의 질

- 근로자 구분을 통해 살펴본 수원시의 일자리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에 속함
 - 비임금 근로자 보다 양질의 일자리인 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국 1~3위를 기록했으나, 상용 근로자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모두 상위권을 기록해야함
 - 전국 지자체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화성시와 과천시로 나타남
- 수원시의 산업구조 특성상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것이 상용근로자수가 적은 원인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심화연구 필요

2 수원시 산업 구조

-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를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개략적인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수원시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49만 2천명) 전국 3위, 거주지 기준 취업자(59만 6천명) 전국에서 1위를 기록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특색 있는 고유산업이 부진하다는 의미이지만 주택가격대비 거주 여건이 좋은 도시라는 의미도 있음
 -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다는 것은 도시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
- 수원시에 근무지 기준 취업자와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조사대상 지자체(155개) 중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
 - 수원시는 인구(125만 명) 만큼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님

-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서비스업 및 상권발달로 인해 수원시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원시의 서비스업에 종사

3 양질의 주거 요건

-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에 대한 분석은 향후 인구 유입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지님
- 인구추계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향후 인구절벽시대의 인구증가는 자연증가보다 외부에서의 인구유입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통계청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가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보다 많은 지역들을 주거도시의 특성이 강한 도시라고 규정

[표 27] 거주지기준 취업자 수 상위 5개 지역

(단위: 천 명)

순위	지역	근무지 기준(A)	거주지 기준(B)	차이(A-B)
1	수원시	492	596	-104
2	고양시	360	474	-114
3	성남시	500	471	29
4	용인시	336	457	-121
5	부천시	349	418	-69

자료: 2016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실제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30만 명 이상인 상위 5개 지역(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은 부천시를 제외하고는 주거도시로서의 특징을 지님
- 김상원 · 이훈래(2016)는 주거형 도시들의 인구유입과 전세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주택보급률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
 - 전세가격과 주택보급률로 인한 인구이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수원시로 유입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필요

- 대표적인 인프라로는 교육, 교통, 교양(수준) 등 '3교'를 들 수 있음
- 인구유입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3교'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으로 수원시의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를 상승시키며 이는 고용률 상승효과로 귀착



발행인 | 이재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